



코로나 확산세... 거리두기 3단계 가나

200명대 유지하다 어제 다시 300명대 확진 방역당국 “전국 확산 앞둔 폭풍전야 상황”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곳곳으로 번져 나가면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다소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크고 작은 세로로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294명까지 급증했지만, 이후 이틀간은 201명, 212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서울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새 늘어난 신규 확진자는 320명으로, 해외유입 13명을 제외한 307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역발생 확진자 중 서울 110명, 경기 92명, 인천 27명 등 수도권에서만 229명이 나와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히 높다.

일례로 주요 집단감염 사례 중 하나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주 가량 지났음에도 전날 4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15명으로 늘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를 통해 종교 시설, 요양 시설, 직장, 의료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n차 감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광복절 당일인 15일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집회 참석자와 경찰을 비롯해 총 193명이 확진됐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13명), 충북(10명), 광주(9명)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내 추가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 대전,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발병 흐름도 예사롭지 않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연일 당부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더 좋은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감염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빨리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현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 시기에 대해 매일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의사단체 집단 휴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문 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 집행 통해 강력 대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이날 새벽까지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5일간의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 등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부미협기자



검체 채취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 26일 서울 은평구 보건소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40세 미만 “1년뒤 집값 오른다”

최근 공황 구매 추세... 40-60세는 “상승 축소”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지수 전국 40세 미만 소비자 사이에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31로, 7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131은 한은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값이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택가격전망을 조사한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동향조사는 연령별로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70세, 70세 이상 등 총 5개 구간으로 나뉜다.

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작년 12월 129였으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직후인 올해 1월 120으로

떨어졌다. 이후 2월 117, 3월 115, 4월 100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5월 들어 104로 반등했고, 6월 117, 7월 129, 8월 131까지 다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6·17 등 추가 대책 발표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공황 구매’ (패닉바이)가 두드러졌던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

이달까지 최근 4개월간 주택가격전망 CSI가 상승한 것은 70세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0세 이상의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30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8년 9월(136)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40~50세(121→120), 50~60세(125→122), 60~70세(124 유지) 등에서는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며 주택가격전망 CSI가 하락하거나 같은 값을 유지했다.

전 연령대를 포괄한 주택가격전망 CSI는 7월의 125를 8월에도 유지했다. 6월(+16포인트)과 7월(+13포인트)에 이어진 큰 폭의 상승세에는 제동이 걸렸다.

한은 관계자는 “40세 미만은 표본 자체가 크지 않아서 흐름을 보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며 “전체 주택가격전망 CSI의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일단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내달 3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 총 20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재정 확대 기조에 뜻

을 같이 했다. 특히 당정은 2021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에 총 20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톨, 국민안전 SOC(사회적안전)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된다. 당정은 또 유출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금년보다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부미협기자

제9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주 제 43의 진실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모 목적 1) 1948년 10월

대상 200자 원고지 6000자 이상 원고지 20매 4매의 줄거리 형식

논픽션 200자 원고지 3000자 이상 원고지 20매 4매의 줄거리 형식

제출기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장소 한국문학진흥원(서울) 또는 제주43평화문학상 사무국

문의처 064-725-9275

www.sgppnoir.org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pnoir.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동행세일 보청기전 브랜드 50~60%대할인!!

490만 → 150만! 980만 → 270만!

세계최초 인공지능 종전식 컷속형 보청기

비종전식 보청기 9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뱅크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환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